

# 알바 '하늘의 별따기' ... 학생들 구직 전쟁

### 최저임금 인상에 업주들 채용 꺼려...주유소도 셀프 전환 증가 5월 청소년 취업자 25% ↓...알바몬 "상반기 경쟁률 7.5대 1"

대학생 안모(여·24)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알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벌써 3주째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워낙 일자리가 없는 탓에 지인의 인맥까지 동원해 겨우 호프집 서빙 알바 면접을 봤지만 "도저히 채용할 여력이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방학 때마다 일해왔던 음식점에서는 이미 '퇴짜'를 맞았고 알바 모집이 흔하디 흔하던 카페, 편의점 역시 채용에 나서지 않는 등 일자리 자체도 크게 줄어들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알바 구하기가 취업보다 힘들다', "인맥이 없으면 알바도 못 구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안씨는 "방학기간에 알바를 하지 못하면 학기 중 용돈을 마련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며 "이번 여름방학은 알바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지역 내 대학들이 일제히 방학에 돌입하면서 이래 없는 '알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업주들이 아르바이트 고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유소들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셀프 주유소로 전환하고 있고 경영난에 시달리는 술집들도 '폐업'에 내몰리면서 구직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직장인들까지 '투잡'에 나서면서 알바 전쟁을 부추기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10대 청소년들의 일터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광주지역 15-19세 청소년 취업자는 6000명으로 지난 1월 8000명에 비해 무려 25%

(2000명)가 줄었다. 또 5월 누적 취업자 수 증감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알바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등록된 온라인 입사지원 가능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는 285만8727건에 입사지원수는 2138만3552건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평균 경쟁률이 7.5대 1을 기록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처럼 지역 내 알바 구하기 경쟁이 치

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단기 알바 고용이 많은 음식점과 술집, 주유소, 편의점 등 자영업자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업주가 직접 일해 업무시간이 늘어나면서 노동강도 역시 심해지는데다, 당장 여름 휴가철 사람들이 도심을 떠나는 시기를 앞두고 매출하락 걱정에 추가고용은 꿈도 꿀 수 없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광주의 한 편의점 점주는 "손님이 뜸한 새벽시간대 알바를 쓰면 오히려 적자영업을 하는 셈"이라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하루에 12시간도 넘게 일하며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푸념했다.

실제, 대표적인 알바 일자리로 꼽히는

주유소 업계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이날 현재 광주지역 주유소 296개 중 셀프주유소로 전환한 곳은 100여개를 돌파해 업장 3분의 1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호프집 역시 지난 4월 사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석 JS컨설팅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돈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알바생들의 기대와 달리 일자리 구하기가 더 힘들어진 상태"라며 "고용주 입장에서 단기 알바생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원 채용을 선호해 알바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롯데백화점광주점 요양병원 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 사물대봉사단은 10일 광주시 남구 광주백운요양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사랑의 부채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롯데쇼핑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294.16 (+8.36)	↓ 금리 (국고채 3년)	2.10 (-0.01)
↑ 코스닥	813.19 (+4.91)	↑ 환율 (USD)	1116.00 (+3.80)

## 금호타이어 주문 감소에 공장 3곳 휴무

### 광주·곡성·평택 최대 8일

금호타이어가 영업오더(주문) 대량 축소로 국내 공장 3곳이 일시적인 휴무에 들어가게 됐다.

1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달 19일 오전부터 22일 야간까지 나흘간 광주·곡성·평택 공장이 휴무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곡성 공장은 승용차 타이어(PCR) 생산라인만 휴무에 들어가며 트럭·버스용 타이어(TBR) 생산라인은 정상 가동한다.

광주와 곡성PCR 공장은 오는 30일 오전부터 31일 야간까지, 내달 6일 오전부터 7일 야간까지 각각 이틀간 두 차례 더 휴무에 들어간다.

나흘간 가동을 멈춘 평택 공장은 오는 31일 오전부터 야간까지 하루 더 공장을 멈추며, 내달 6일 오전부터 9일 야간까지 3일 동안 추가 휴무에 들어간다.

이달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평택 공장은 국내 공장 3곳 가운데 가장 기간인 총 8일간 공장을 멈추게 된다.

곡성TBR 생산라인도 내달 6일 오전부터 7일 야간까지 이틀간 추가 휴무에 들어간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3월 노사간 특별합의로 공장 운영에 필요한 물량 부족에 따른 휴무(무급 20일·통상임금 50% 지급 20일)일을 40일 이내에서 운영토록 했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SKT, 최다 데이터 사용 고객 포상

### '고객혜택 제대로 알리기' 프로모션 7월 이벤트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본부장 김현국)가 고객가치혁신을 내걸고 진행중인 '고객혜택 제대로 알리기'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고객혜택 제대로 알리기'는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각종 혜택을 알리고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프로모션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SK텔레콤은 올해 다양한 테마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이달에 진행중인 프로그램은 '최대 데이터 사용고객찾기'로,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1월~6월 매장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천요금화면에서 데이터 사용이 가장 많은 고객을 찾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지난달에는 'SK텔레콤 내방고객 중

멤버십 할인 최다 고객을 찾아라'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올해 멤버십 혜택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고객을 찾아내 포상하는 것으로, 목표지역 SK텔레콤 매장 내방 고객이 최다 할인혜택 수혜고객으로 선정됐고 찾아낸 매장직원도 100만원의 포상을 받았다.

서부마케팅본부는 앞으로도 '가족결합 고객 중 연간 합산 최상고객 찾기'를 진행하는 등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김현국 본부장은 "특별한 혜택들이 많은데 제대로 알리고 제공해 드리고 싶다"며 "지속적으로 고객가치 혁신활동에 앞장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재 기자 ej6621@

## 해외여행, 저가항공 아는 만큼 싸게 간다

### 에어필립·에어서울·에어부산 등 휴가철 파격 할인 일본·코타키나발루 등 항공권 4만원대 부터 판매

어떻게 하면 싼 값으로 멋진 곳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 휴가철을 앞둔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이다. 특히 해외여행이 대세인 시기, 짧더라도 해외에서 보내려는 지역민들이 많다. 이때 저비용항공사의 프로모션을 잘 살펴보면 파격적 가격으로 해외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여름휴가철

을 앞두고 승객 확보를 위한 프로모션 경쟁에 돌입했다.

에어서울이 10일 오후 2시부터 17일까지 진행하는 '사이다 특가' 이벤트는 연중 2회 실시하는 정기 특가 이벤트로, 일본, 동남아 노선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일본 노선의 경우 편도 항공권을 최저 4

만5900원부터 구입이 가능하고 다낭은 8만5000원(편도 기준)부터, 코타키나발루는 8만27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동경, 오사카는 4만9900원(〃)부터 판매된다. 첫 날 구매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둘째날, 셋째날도 추가로 특가 좌석을 제공한다. 탑승 기간은 오는 10월 28일부터 내년 3월 30일(탑승일 기준)까지다.

에어부산도 오는 17일부터 일년에 2회 열리는 항공권 프로모션인 '플라이 앤 세일'(FLY&SALE)을 실시한다. 국내선 7개 노선, 국제선 26개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선과 국제선 1차(중국·동남아 노선 등), 국제선 2차(일본 노선)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주는 편도 항공권을 1만 5900원부터 구매할 수 있고 부산-후쿠오카, 대구-오사카 노선은 4만9800원(편도 기준), 부산-대구-다낭, 하안 편도 항공권도 9만27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20일까지지만 풀리는 물량이 적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탑승 기간은 국내선은 8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국제선은 10월 28일부터 내년 3월 23일까지다.

에어필립도 취항을 기념해 오는 15일까지 광주-김포 노선을 1만9500원(편도 기준)에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탑승 기간은 29일까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에어부산도 오는 17일부터 일년에 2회 열리는 항공권 프로모션인 '플라이 앤 세일'(FLY&SALE)을 실시한다. 국내선 7개 노선, 국제선 26개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하며 국내선과 국제선 1차(중국·동남아 노선 등), 국제선 2차(일본 노선)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주는 편도 항공권을 1만 5900원부터 구매할 수 있고 부산-후쿠오카, 대구-오사카 노선은 4만9800원(편도 기준), 부산-대구-다낭, 하안 편도 항공권도 9만27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20일까지지만 풀리는 물량이 적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탑승 기간은 국내선은 8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국제선은 10월 28일부터 내년 3월 23일까지다.

에어필립도 취항을 기념해 오는 15일까지 광주-김포 노선을 1만9500원(편도 기준)에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탑승 기간은 29일까지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벤츠, S-Class 고객 '무상점검'

### 더클래스 효성 이달까지 유상수리 고객 부품 할인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이 이달 말까지 '여름맞이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S-Class 캠페인'은 보증기간이 만료된 S-Class 고객을 대상으로 하체 관련 부품을 20% 할인, 판매하며 방문 고객에게는 혹서기 무상점검(12개 항목)을 진행한다. 하체 관련 부품 중 타이어 및 브레이크 관련 부품은 제외된다.

캠페인은 구매 후 3년이 지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캠페인 기간 유상수리 고객의 경우 야외활동에 유용한 클러백을 증정한다.

또 여름철 차량관리를 위한 브레이크 점검을 비롯, 오일류, 배터리 등에 대한 무상점검도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유상수리 고객 전원에게 커피 기프트콘도 증정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제8대 고흥군의회 개원

생동감 넘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의회

작은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고흥군의회  
GOHEUNG-GUN COUNCIL

http://igoheung.com/